



가수 씨니, 싱글 '윈터 송' 발매

가수 씨니(Sunnie)가 17일 낮 12시 싱글 '윈터 송'(Winter Song-사진)을 발매한다고 소속사뉴텍뮤직이 밝혔다.



신보에는 '윈터 송'과 '겨울아이' 등 2곡이 수록됐다. '윈터 송' 뮤직비디오는 워너뮤직코리아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소속사는 "신곡들은 씨니의 따뜻한 감성이 잘 표현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음악"이라며 "연말 연시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보컬 그룹 바버렛츠의 멤버 경선으로 더 잘 알려진 씨니는 지난 5월 가수 적재가 피처링한 '똑바로 바라봐'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자동차 광고 삽입곡으로 사용된 '런'(Run)으로 주목받았고 KBS 음악 경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연합뉴스

'서울의 봄'으로 분위기 반전...한국영화 흥행 이어간다

위기 영화계 연말연시 대역전 기대 '노랑'·'외계+인' 2부 등 대작 예정 '시민덕희'·'파묘' 내년 1~2월 개봉

올해 초부터 주요 작품이 잇따라 흥행에 참패하며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한국 영화계가 연말연시에 대역전을 노린다.

'서울의 봄'이 히트한 데 이어, 또 다른 대작 '노랑: 죽음의 바다'가 흥행 바통을 건네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극장가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16일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1~10월 개봉한 한국 상업 영화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은 '범죄도시3', '밀수', '잡', '30일' 등 네 편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잡'과 '30일'의 경우 각각 147만명, 216만명을 모아 '흥행작'으로 분류하기엔 애매하다는 시각이 많다. '범죄도시3'(1천68만명), '밀수'(514만명) 두 편만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올 한 해 한국 영화는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더 문'(51만명), '1947 보스톤'(102만명), '비

공식작전'(105만명), '교섭'(172만명) 등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뿐만 아니라 흥행 감독과 스타 배우를 내세워 기대작으로 꼽혔던 '유령'(66만명), '드림'(112만명),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191만명), '소년들'(47만명), '거미집'(31만명) 등이 모두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영화계에서 '1년 장사'를 죽 썼다는 한탄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개봉한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개봉 12일 만인 이달 3일 손익분기점(460만명)을 넘긴 이 영화는 8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천만 영화'에 등극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20일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마지막 편 '노랑: 죽음의 바다'(이하 '노랑')가 개봉한다.

1편 '명량'(1천761만명)이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고, 팬데믹 여파가 가시지 않은 시점에 개봉한 2편 '한산: 용의 출현'(726만명) 역시 작년 한국 영화 2위 흥행작일 정도로 이 시리즈의 인기는 높다.

특히 '노랑'은 이순신 장군 최후의 전투와 그의 죽음을 그렸다는 점에서 흥행 기대감이 더 크다.

최근 열린 언론·배급사사회에서는 100분이 넘는 치열한 해상 전투 장면과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조화롭게 담았다는 호평을 들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올해 워낙 한국 영화가 잘 안됐기 때문에 연말에도 큰 기대가 없었지만 '서울의 봄' 흥행이 상황을 반전시켰다"면서 "이 흐름을 타고 '노랑'이 2023년 한국 영화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는 최동훈 감독의 판타지 영화 '외계+인' 2부가 극장가를 겨냥한다.

작년 여름 극장에 걸린 1부는 154만명을 동원하는 데 그치며 관객 반응이 신통치 않았지만, VOD(주문형비디오)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본 사람이 점차 늘면서 재평가받는 추세다.

유튜브에 게재된 예고편에는 "1부가 흑평을 받았던데 개봉 때는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재밌었다", "2부는 꼭 극장에서 관람하겠다" 같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노랑' 개봉 4주 차인 다음 달 10일에 개봉하는 만큼, 타이밍도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OTT 등으로 1부를 시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밌게 봤다고 평가하고 있어 2부는 1부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극장으로 불러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중형급 영화들의 라인업도 탄탄한 편이다. 1월 24일 개봉하는 '시민덕희'와 2월 나오는 '파묘'가 대표적이다.

박영주 감독이 연출한 '시민덕희'는 코미디 연기에 일가견 있는 라미란이 주연을 맡았다. 평범한 소시민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한다는 이야기다. 요즘 관객에게 통하는 '팝콘 무비'라는 점이 흥행에 유리한 대목이다.

오컬트 영화인 '파묘'에는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검은 사제들'(544만명), '사바하'(239만명) 등으로 작품성과 흥행력을 입증한 장재현 감독의 신작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시민덕희'와 '파묘' 모두 관객에게 어필할 장점이 뚜렷한 작품들"이라면서 "'노랑', '외계+인' 2부 이후 나오는 두 작품이 어느 정도만 흥행해줘도 설 연휴 개봉작까지 한국 영화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연말과 연초 DC 스튜디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디즈니 애니메이션 '위시', 판타지물 '둔: 파트 2', '왕가' 등 할리우드 대작이 줄줄이 개봉해 쉽지 않은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BTS 정국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영 싱글 차트 97위...6주 연속 '톱 100'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6주 연속 진입했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전주보다 23위 하락한 97위를 기록했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6위로 처음 이 차트에 진입한 이래 30위, 42위, 69위, 74위, 97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정국의 리듬감 있는 보컬이 돋보이는 레트로 펑크 장르의 곡이다.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깊기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풍성한 관악기 연주, 터질 듯한 퍼커션 사운드, 정국의 파워풀한 가창력이 조화를 이뤘다.

아동용 콘텐츠 핑크퐁 '아기상어'(영어명 베이비 샤크·Baby Shark)는 전주보다 4위 하락한 99위를 기록했다. 이 노래는 2018년 이래 5

년에 걸쳐 비연속으로 75주째 진입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과시했다.

에이티즈의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THE WORLD EP. FIN: WILL)은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57위로 2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든'(GOLDEN)은 같은 차트에서 전주보다 8위 하락한 79위로 6주 연속 진입했다. /연합뉴스



JYP 일본 활동 보이그룹

7인조 '넥스지' 최종 확정

일본에서 활동할 JYP엔터테인먼트 새 보이그룹의 데뷔 멤버 7명과 팀명이 최종 확정됐다.

JYP는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일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후루를 통해 공개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시즌 2 마지막 회에서 최종 데뷔 멤버와 팀명 '넥스지'(NEXZ-사진)를 발표했다.

'Next Z(G)eneration'(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축약한 팀명 넥스지는 차세대를 책임질 멤버들이 모여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로, 프로젝트 심사위원을 맡은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작명했다.

최종 멤버 7명은 토모야, 하루, 유우키, 켄, 유우, 유우히, 세이타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예선과 합숙 등 관문을 통과하며 댄스 실력, 가창력, 스타성, 성실함 등을 인정받았다.

넥스지는 오는 18일 일본 니혼TV '데이 데이'(Day Day)에 게스트로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여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